

<번역 논문>

## 귀츨라프역 일본어 요한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번역어 재고<sup>1)</sup>

하마지마 빈(浜島 敏)\*

김남구 번역\*\*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가 번역한 일본어 요한복음<sup>2)</sup>을 실제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서두가 “ハジマリニ カシコイモノゴザル。コノカシコイモノノゴクラクトモノゴザル。(태초에 카시코이모노가 계셨다. 이 카시코이모노는 고쿠라쿠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어디에선가 들어본 적 있는 크리스천은 많을 줄로 안다. 독자들 대부분은 이 번역이 대단히 서툴고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후대의 번역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그에 관한 한 상식적 지식밖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읽으려 하지도 않는다. 필자는, 2006년, 『귀츨라프역 요한복음』<sup>3)</sup>의 현대어 번역(일본성서협회)에 관여하면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두 개의 단어, ‘카시코이모노’와 ‘고쿠라쿠’에 어떤 한자를 적용할지를 놓고 매우 고민했었다. 이전 「四国学院大学論集」에 투고했던 논문에서는 ‘카시코이모노’를 ‘賢い者’로, ‘고쿠

\* 시코쿠학원대학 명예교수.

\*\*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구약학. liedernyam@gmail.com.

- 1) 浜島 敏, “ギュツラフのこだわり 「かしこいもの」と「ごくらく」再考”, 『聖書翻訳研究』 33 (2014), 日本聖書協会, 39-43.
- 2) [역자주] 『約翰福音之傳』, ギュツラフ(Gützlaff) (新嘉坡: 堅夏書院, 1837), 이 성서는 일본어로 번역된 가장 오래된 성서로,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us Gützlaff, 1803-1851)가 마카오에서 일본인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 요한복음을 번역하여 1837년 발행한 것이다. 귀츨라프의 성서를 포함하여 일본어역 성서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Katsuomi Shimasaki, “A Short History of Japanese Bible Translation”, 『성경원문연구』 24 별책 (2009. 4.), 116-126; 카추오미 쉬마사키, “일본 성서 번역의 역사”, 『성경원문연구』 24 별책 (2009. 4.), 365-376.
- 3) [역자주] 日本聖書協会 編, 『約翰福音之傳 ギュツラフ訳 ヨハネによる福音書 朗誦CD付』 (東京: 日本聖書協会, 2006). 귀츨라프의 요한복음 초판, 현대 일본어 판 귀츨라프의 요한복음, 어구해설, 그리고 1-4장, 20장, 21장의 낭독 CD가 묶인 책이다. 현대 일본어로 옮긴 부분은 본고의 저자인 하마지마 빈(浜島 敏)이 번역하였다.

라쿠’를 ‘極樂’으로 옮긴 후에 각각의 한자에 ‘카시코이모노(カシコイモノ)’와 ‘고쿠라쿠(ゴクラク)’라는 ‘한자 읽기(ルビ[루비])’를 달아 주었다. 그리고는 이들 각각이 ‘말씀(言葉)’과 ‘하나님(神)’을 의미한다고 괄호로 표시했었다. 그런데, 성서협회의 출판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카시코이모노’를 ‘말씀(言葉)’으로 하고, ‘고쿠라쿠’를 ‘하나님(神)’으로 옮기려 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리스어 원문으로부터 ‘로고스(로고스)’로 가타카나 표기를 한 후, 한자 읽기는 ‘카시코이모노’로 달았으며, ‘테오스’는 ‘上帝’라는 한자로 표기하고 한자 읽기를 ‘고쿠라쿠’로 달아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변경할 때마다 편집자를 괴롭힌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다. 이것은 주석 부분에서도 언급되었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왜인지 이 두 단어의 처리가 깔끔하게 해결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이들 두 단어로 범위를 좁혀서, 귀츨라프의 번역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 1. 카시코이모노(カシコイモノ)

앞에 언급된 일본성서협회 복각판 요한복음<sup>4)</sup>에서는, 가타카나로 표기된 원문에 대한 복각(復刻) 부분의 한자 표기가 ‘賢い者(지혜자)’로 되어 있다. 필자가 논문에 표기했던 것이 답습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해석되고 있으나 ‘로고스’에 ‘지혜롭다(賢い)’라는 개념은 없어 보인다. 귀츨라프는 아마 단순한 단어 번역으로 이 ‘로고스’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로고스’로 번역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미드허스트(W. H. Medhurst)는 그의 사전<sup>5)</sup>에서, ‘word’를 ‘코토바(말)’라고 옮겼는데, ‘코토바’라는 단어를 일본인 세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4장 41절 등에는 ‘코토바’라는 용어가 별도로 등장하고 있다(“ニンゲンヒトノコトバユヅンジル[사람들이 그의 말씀으로 인해 믿었다]”). 귀츨라프가 여기에서 굳이 ‘카시코이모노(カシコイモノ)’로 번역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4) 日本聖書協會編, 『約翰福音之傳 ギユツラフ訳 ヨハネによる福音書 朗読CD付』.

5) [역자주] W. H. Medhurst, *An English and Japanese and Japanese and English Vocabulary* (Batavia: s.n., 1830). 이 책은 세계 최초의 영일·일영 사전으로 알려져 있다. 바타비아(자카르타)의 동인도회사에 소장되어 있던 오후다이로 마사타카(奥平 昌高)의 『蘭語訳撰』 등을 참고하여 지었다. 이에 대하여는 메이지학원대학 디지털 아카이브 웹사이트의 소개를 참조. “<http://www.meijigakuin.ac.jp/mgda/waei/topics/medhurst.html> (2016. 1. 29).”

렇지 않다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ハジマリニ コトバゴザル)”라고 번역하는 것이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코토바(말씀)’으로는 그리스도를 명시할 수 없다고 느껴, 일부러 ‘카시코이모노’라고 번역했을 것으로 본다. 중국어에 능통했던 귀츨라프가 중국어 성서에 ‘道’로 되어 있지 ‘言’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약간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귀츨라프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를 여기에 소개하고 싶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카시코이모노’였다.

그런데, 이 ‘카시코이’라는 단어가 ‘賢い(지혜롭다)’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필자는 사실, 확신하지 못했다. 그 후, 여러모로 조사해 본 바, 지금은 이 ‘카시코이’를 ‘畏い(경외하다)’로 표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카시코이(畏, 恐, 賢)’라는 말을 『일본국어대사전』에서 보면, ‘두려워할 만한 영적 권위나 위엄이 있는 모습, 또는 그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을 나타낸다. 두려워해야 한다. 두렵다.’가 원의로 되어 있으며, 만엽집(万葉集) 등에도 그 예가 나타난다(天雲をほろに踏みあだし鳴る神も今日にまさりて「かしこけ」めやも)<sup>6)</sup>. ‘카시코무(かしこむ)’나 ‘카시코마루(かしこまる)’라는 말은, 지금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축문에서는 ‘카시코미카시코미마오마오수(かしこみかしこみまをます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가 말씀 올립니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전쟁을 경험한 사람 중에는 천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카시코쿠모’라는 말이 사용되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을 터인데, ‘카시코쿠모’라는 말을 들으면 부동자세를 취해야 했었다. 앞에 언급한 사전에는 ‘카시코키카미(かしこき神)’라는 부표제어가 있고, ‘큰 힘과 위엄이 있는 신, 두려운 신’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이때 ‘카시코이’를 나타내는 한자는 지혜가 뛰어난 것을 가리키는 ‘wise’의 ‘賢’이 아니라, ‘두렵기 그지없다’라는 의미의 ‘畏’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한다. ‘畏き仏(두렵기 그지없는 부처님)’이라는 표현도 있다. 그렇다면, ‘카시코이모노’라는 것은 ‘황공하기 그지없는 분’이 된다. 찬송가에도 ‘너무도 황공하신(いともかしこし)’(502장)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자주 불리고 있다.

물론, ‘말씀(ことば)’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역할이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역할을 표현하는 데에 어울리기는 하나, ‘기독교’의 첫자인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 ‘머리가 좋은 분’이라는 것보다는, ‘황공하기 그지없는 분(畏れ多い方)’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스도

6) [역자주] 『만엽집(万葉集)』은 일본의 고대 시가집(詩歌集).

에 대해 일본인 세 사람이 받았던 이미지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번역이 어설픈 번역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번역으로 여겨진다. ‘로고스’를 ‘말씀(ことば)’이라고 직역하지 않았던 귀츨라프의 생각의 깊이가 느껴진다. 기독교인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로고스’라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인격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한 그의 노력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 2. 고쿠라쿠(ゴクラク)

그리스어 ‘테오스’의 번역은 기독교인의 신(神)에 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어로 ‘카미(神)’라 번역된 탓에 유일신의 개념이 희박하고 애매해졌다는 비판을 종종 받는다. 그러한 일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어 ‘테오스’가 되었던 라틴어 ‘테우스’가 되었던, 이들이 애초부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히브리어의 ‘엘’로 했다고 해서, 이교도의 신들과는 다른 말이 되었던 것도 아니다. ‘엘로힘’이 복수형인데도, 동사에 단수형이 택해졌다고 해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약의 색안경을 끼고 본 것으로 아전인수도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다. 물론, 신약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구약을 신약의 거울에 비추어 봄으로써, 그 때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진리가 명확해지는 것이 사실이며, 또 그때 비로소 신약의 의미가 확실해진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오히려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을, 영어에서 ‘제왕과 제후를 이룰 때 사용하는 복수형 we’<sup>7)</sup>와 유사한 복수 형태로 보아 일종의 존경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삼위일체를 결부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 19세기 중국의 초기 프로테스탄트 선교과정에서, 성서번역 때 하나님을 ‘神(신)’으로 번역할 것인가 ‘上帝(상제)’로 번역할 것인가를 놓고 커다란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여기에서의 자세한 기술은 생략하겠지만, 결과적인 것만 조금 언급하면, 유럽계 선교사들은 ‘상제’를 주장하고, 미국계 선교사들은 ‘신’을 주장했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 양자는 갈라서게 되는데, 이것이 현시점의 번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7) [역자주] 영어의 ‘Royal We’를 가리킨다. [https://en.wikipedia.org/wiki/Royal\\_we](https://en.wikipedia.org/wiki/Royal_we) (2016. 1. 29.) 참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귀츨라프는 ‘상제’파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카미(神)’가 아닌 ‘고쿠라쿠(極樂[극락])’로 번역하게 된 것이다. 왜 이 단어를 취했는지는 물론 알 수 없다. 미드허스트 사전<sup>8)</sup>에서는 ‘카미’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었고, 때문에 분명 그렇게 번역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제파였던 그는 ‘테오스’를 ‘카미(神)’라고 번역할 수 없었다. 더구나 미드허스트 사전에서 제시한 ‘신(神)’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이교도들이 말하는 신이다. 절대적인 유일신을 암시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미드허스트의 일영(日英) 사전 속의 ‘카미’는 “A god, a nobleman”이라 풀어지고 있으며(요컨대 ‘사람’이다), 영일(英日) 사전에서는, “A god(카미), Celestial gods(천상의 신), Terrestrial gods(지상의 신), God of thunder(천둥의 신), God of the wind(바람의 신), God of fire(불의 신), Kitchen god(부엌의 신), River god(강의 신), Gods of the soil(땅의 신), Topical gods(흙을 다루는 신), Demi-gods(보살)” 등이 나타나 있다. 필시 귀츨라프는 이것을 보고, 절대적인 유일신을 ‘카미’로 번역하는 데에 주저했을 것이다. 그 결과 ‘고쿠라쿠(극락)’가 된 것이지만, 일본어에서 ‘고쿠라쿠’가 갖는 근본적인 의미는 ‘극히 즐거운 곳’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로 히브리어의 ‘에덴’에 상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귀츨라프가 그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는 물론 알 수 없지만, 필자는 영어 같은 유럽의 언어에서 ‘하늘(heaven)’을 나타내는 단어가, 종종 비유적으로 ‘지고자(至高者)’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던 것과 관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일본어에서도 ‘하늘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생각은 세계 공통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카시코이모노’의 경우는 귀츨라프와 거의 같은 시대에 번역된 것으로 보이는 윌리암스역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이 사본의 작성자인 하라다쇼조(原田庄藏)가 귀츨라프 옆에 있으면서, 모리슨호를 타고 일본 귀국을 시도했던 인물인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할 수 있다. 다만, 이 번역의 경우, 마태복음은 여러 곳에서 소개되고 있으나, 요한복음은 카도와 키키요시(門脇清) 일행의 『카도와키문고일본어성서번역사』(1983)에서밖에 볼 수 없었으며, 필자가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했다.

‘고쿠라쿠’의 경우는 ‘카시코이모노’와는 달리 후대의 번역자들이 그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 아무래도 불교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베텔하임(B. J. Bettelheim)이 가타카나로 번역한 오키나와어(語) 역본에

8) W. H. Medhurst, *An English and Japanese and Japanese and English Vocabulary*, 48.

서는 ‘시아누데이(상제)’라는 단어가 채택되고 있다. 그것은 그가 사용했던 중국어 저본이 상제판이었던 것, 그리고 베텔하임 자신 또한 유럽계였다는 것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그는 훗날 오키나와에서 미국에 건너갔고, 히라가나판 일본어 성서를 빈에서 출판하는데, 그 개정판에서는 ‘카미(神)’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가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카미’와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이 말이 일본에서 ‘카미(神)’로 정착되는 데에는 헵번(J. C. Hepburn)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 그가 번역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것도 있지만, 중국의 ‘상제와 신’의 논쟁에서 그는 ‘신(神)’과 측에 가담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어 번역과 동시 진행으로 브리지만의 개정 중국어판(여기에서는 ‘神’이 사용되었다)이 수입되었고, 그것에 훈점을 붙인 훈점성서가 식자층에서 많이 읽힌 것과 맞물려 일본에서는 그러한 논쟁은 거의 없이 그대로 ‘카미(神)’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번역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에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예전부터 있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친숙한 말에 새로운 개념을 주입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일본어역에서는 최종적으로 ‘카미(神)’라고 하는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지만(키리시탄 시대 때<sup>9)</sup> ‘大日’의 사용을 그만두고, ‘데우스’라는 새로운 단어를 차용했던 것은 유명하다), 선교 150년의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카미’라는 말을 통해 기독교적인 신의 개념을 얼마나 일본인에게 심어줄 수 있었는지는 다시 한 번 물어볼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

#### <주제어>(Keywords)

귀츨라프, 귀츨라프역 요한복음, 로고스, 테오스, 카시코이모노, 고쿠라쿠.  
 ギュツラフ, ギュツラフ訳ヨハネによる福音書, ロゴス, セオス, カシコイモノ, ゴクラク.

(투고 일자: 2016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16년 2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3월 25일)

9) [역자주] 일본의 키리시탄 시대란 처음 일본에 들어간 천주교가 박해 없이 포교 활동하던 16세기를 가리킨다.

<참고문헌>(References)

- 『ギュツラフ訳ヨハネによる福音書』(復刻), 東京: 日本聖書協会, 2006; 원출판년 1837.
- 『約翰導福音書』[琉球語訳](復刻), 베틀하이ム (Bettelheim, B. T.) 訳, 奈良県: 天理大学出版部, 1977; 원출판년 1851.
- 『約翰導福音書』 宇院 (ウィーン[Wien]) (復刻), 베틀하이ム (Bettelheim, B. T.) 訳, 東京: ゆまに書房, 1999; 원출판년 1873.
- 門脇清・大柴恒, 『門脇文庫, 日本語聖書翻訳史』, 東京: 新教出版社, 1983, 66-67.
- 加藤知己・倉島節尚, 『幕末の日本語研究, W. H. 메드허스트, 英和·和英語彙 — 複製と研究·索引』(復刻), 東京: 三省堂, 2000.
- Medhurst, W. H., *An English and Japanese and Japanese and English Vocabulary*, Batavia: s.n., 1830.